

## 창세기 여섯번째 메일

성경에 '바벨' 에대한 기록이 있다. '바벨' 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언어와 종족을 분산 시키신 하나님의 기막힌 계획이었다. 그렇게하신 이유가 있었을까? 도대체 그 배경은 무엇일까?

최초의 인간 가인이나 가인의 후손들은 '성' 을 쌓는 것을 좋아했고 그리고 성을 잘 쌓았다.(창4:17) 홍수 후에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도 성을 쌓기를 좋아했다.(10:12) 사람들은 홍수 전이나 홍수 후나 끊임없이 성을 쌓는 일을 추진했다. 그러나 '바벨' 은 사람들이 좋아서 쌓은 성읍의 차원을 넘어 높은 '탑' 을 쌓았는데 '바벨' 은 인간이 쌓은 최초의 높은 '탑' 이다. '바벨' 의 문제는 무엇일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하여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 이었다.(11:4) 보라! 가인도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 성' 이라 부르지 않았는가? 물론 탑이 하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람이나 하나님이 알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신 이유는 사람의 생각의 교만함때문이다.

이사야서에 보면 천사가 사탄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는데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한 것과도 같다.(사 14:13-14) 천사의 교만이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된 것 아닌가? 가인이 성을 쌓아 자신의 아들 이름을 내세우게 된 것은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 앞을 떠났다' (창 4:16) 고 분명히 밝히는 이유 때문이다. 바벨 탑 꼭대기는 인간의 교만을 상징한다. 인간의 교만은 항상 자신에게 집중하고 다른 모든 것을 자신에게 집중 시키려 한다. 당신은 혹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흩어 놓은 언어와 종족이 오늘날 문명의 발달로 점차 통일되고 있다. 언젠가 인간이 종족과 언어를 떠나 하나로 통일 되는날 그 인간의 교만이 바벨

이 되어 하늘을 찌를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그날이 올 것을 알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고자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라고 하신 말씀에서 잘 드러난다.(창 11:6) 당신의 이름이 알려지고 싶고 당신의 공로가 인정되고 싶을때는 당신의 성을 쌓고 있기때문이다. 당신이 드러나고 싶을때 혹은 당신이 높아지고 싶을때 그때가 바로 당신의 '바벨' 입을 잊지말아야한다. 그때 무릎 꿇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된다...! 아멘!